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날개 달다

광주시-㈜제타뱅크·㈜헬스허브 협약…광주법인·사무소 추진
AI분야 인재양성·일자리 창출·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가 날개를 달았다. 음성인식과 공간지능, 자율주행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인공지능 로봇 개발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연이어 광주에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8일 AI 유치기업인 ㈜제타뱅크, ㈜헬스허브와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37~38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업별 법인설립 및 지역사무소 설립을 통해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인공지능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 및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정책 자문, 인공지능분야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및 지역사무소 신설 추진, AI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기업홍보,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주)제타뱅크는 음성인식, 공간지능, 자율주행, 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며 인공지능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AI로봇 전문기업으로, ▲주요 출입문 등에서 손소독, 온도, 마스크를 체크 후 데이터 제공하는 복합예방키트 ▲24시간 실내 환경을 감지하고 자동 방역후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역로봇 ▲특수 공간 전체를 세균 99.9999%까지 박멸하는 공간멸균로봇 등을 보유하고 있다.

㈜헬스허브는 의료영상 저장장치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개발해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의료영상을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장소에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제공해주는 원격판독플랫폼 HTelerad ▲의료영상을 쉽게 보관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개인 의료영상 보관 플랫폼 HScan ▲인공지능 기반의 골연령 측정 시스템인 BoneAge A.I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헬스케어 전문기업이다.

㈜제타뱅크와 ㈜헬스허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광주법인 및 지역사무소를 설립하고, 현 보유기술로 빠른 시일 내에 인공지능 로봇분야와 헬스케어 분야 인재육성, 광주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제타뱅크 최동완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기에 자체 개발한 AI방역로봇이 감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법인을 설립해 로봇분야 사업화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중심도시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헬스허브 이병일 대표이사는 "오랜 경험과 자체 보유기술로 뛰어난 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을 광주에서 시작하고 싶었다"며 "지역법인 설립 및 인재채용으로 최대한 빨리 사업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AI기업이 광주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생태계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유치된 인공지능 기업들과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AI기업들도 크게 성장하고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윤영덕(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박희율 광주 남구의회 의장 등이 2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공공기관의 남구 유치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 남구, 2차공공기관 유치전 본격 나섰다

"대촌, 나주혁신도시와 인접 시너지 효과 발휘"

광주 남구가 2차 공공기관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윤영덕(광주 동구 남구갑) 국회의원,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박희율 광주 남구의회 의장 등은 2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수한 교육 환경과 신규 산단 개발, 의료 등의 여건을 갖춘 남구에 더 많은 공공기관이 유치돼야 한다"고 공공기관 남구 유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낙후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주에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 생활하던 이들이 교육, 의료, 교통 등 정주 여건이 마땅치 않아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실정이다"면서 "남구의 우수한 문화·교육 인프라가 보완된다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 임직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도시의 경계가 나주에서 남구까지 확장되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부족한 정주 여건을 남구의 우수한 인프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남구 대촌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에너지밸리산업단지라는 매력적인 투자처도 보유해 공공기관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조성 목적을 최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또 "한전을 비롯해 기존 혁신도시와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광주·전남의 에너지 산업을 한층 강화하고 성장의 결실을 공동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추석 연휴 집에서 보는 5·18 온라인전시관

5·18기록관, 기획전시 개막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29일 오후 기록관에서 1980년 당시 시민들의 광주정신을 느낄 수 있는 기획전시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개막식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전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8일부터 온라인 전시로 먼저 공개했다. 22일부터는 오프라인 전시를 하고 있으며 10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전시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이 생산한 사료를 중심으로 세 명의 여성작가가 광주정신을 표현한 전시품으로 구성됐다. 참여 작가는 노정숙, 주홍, 문선희 작가이며, 전시를 기획한 고가연 학예연구사가 전시설명을 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문의사항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으로 하면 된다.

정용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작가의 표현으로 잃어버린 40년 5·18기억을 찾아낸 것처럼 기록관을 찾는 많은 이들이 힘든 코로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광주정신을 가져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추석 연휴 가을 나들이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교통사고·등산·자전거 사고 등

광주시는 28일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교통사고, 등산, 자전거 사고 등 생활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교통사고는 10~11월에 빈번히 발생하고 등산과 자전거사고도 10월에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 나들이 철인 10월은 장거리 이동과 단체 이동 등 차량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져 교통법규를 준수 등 사고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광주시의 설명이다.

또 단풍철 산행 시에는 날씨와 등산로 등 정보를 사전 확인한 후 산행 전 안전체조, 절벽 접근금지 등 안전수칙을 지키고 무리한 산행도 자제해야 한다.

자전거사고는 날씨가 좋은 봄·가을에 주로 발생하지만, 특히 10월이면 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안전모 쓰기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김성학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추석 연휴 등 10월에 빈발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동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에너지 전환'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선다

시의회·전문가 등 참여
'그린에너지 제도분과위' 발족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시민단체, 분야별 전문가가 '에너지자립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공동으로 나선다.

광주시는 28일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그린에너지 제도분과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린에너지 제도분과위원회'는 김광란 시의회 그린뉴딜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시민단체, 에너지·건축·건설·도시계획·환경·법률 전문가,유관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제도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그린에너지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제도를 발굴하고 시의회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건축·건설 등 일정규모 이상 예산 사업 추진 시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에너지 절감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에너지 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제도분과위원회는 앞으로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전원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위원회를 운영해 각 제도별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제도분과위원회 발족으로 친환경 그린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란 위원장은 "광주형 AI-그린뉴딜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정치권도 힘을 합쳐 제도분과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조례로 만들고, 정부에 법제화할 수 있도록 건의해 광주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AMOREPACIFIC CORPORATION
기업고객님을 위한 아모레퍼시픽 추석 선물세트
•3만원 이상
프레시팝 베이직
32,900원
(카드할인 3,000원, 3+1)
저자극 더마 헤어&바디기프트
36,900원
(5+1)
도담36호
36,900원
(10+1)
도담45호
45,900원
(10+1)
려 천삼화
45,900원 (5+1)
사랑행복두배세트
49,900원
(5+1)
•3만원 이하
도담21호
21,900원
(카드할인 4,000원, 5+1)
라벤더 1+1 바디세트
28,900원
로즈에디션 1+1 세트
28,900원
도담29호
29,400원
(카드할인 5,000원, 5+1)
해당 프로모션 적용기간 9/16~10/2 일 까지
아모레퍼시픽 데일리뷰티 광주영업팀 : 062-231-1868(09:00~18:00)
*본 카달로그의 이미지는 연출컷으로 실제 이미지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장별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 전 매장 담당에게 문의해주세요.